

사회

전남도교육감 공석 6개월째 ... 교육행정 누수 심각

공무원 '복지부동' 교사·학생들 피해

학생 수 1명 부족하다고 "반 배정 다시하라"
법적근거 모호하다고 "장애학생 지원 못해"
주택임차금 신청엔 "동료교사 보증 세워라"

6개월째 교육감 공석상태인 전남
도교육청에 복지부동·무사안일 풍조
가 만연하고 있다.
계학 한달 만에 학생수가 1명 모자
란다는 이유로 중학교 학급을 줄이는
소동이 벌어지는가 하면 교사들에게
주택임차지원금 신청을 받으면서 동
료교사를 보증인으로 세우도록 해 일
선 교사들이 반발하고 있다. 사회적
배려 대상인 장애아동의 경우에는 무
상교육이 원칙인데도 법적근거가 모
호하다는 이유만으로 이를 거부하는
일까지 발생했다.

최동주 보성여중 교장은 "반 배정
이 끝나고 학습분위기까지 조성된 상
황에서 학급을 줄이라는 공문이 내려
왔다"면서 "학부모들의 항의가 빗발
쳐 일이 손에 잡히지 않을 정도"라고
하소연했다. 하지만, 도 교육청은 전
학학생을 감안하지 못한 학교측의 실
수라는 입장만 되풀이하고 있다.
이와 함께 도교육청은 올해부터 교
사의 주택임차금(1인당 2천만원) 신
청시 미납발생을 막기 위해 동료교사
를 보증인으로 세우도록 했다. 이는
도 된다는 결정을 내렸기 때문이라는

공무원의 채무 불이행에 따른 사회적
문제발생 예방을 위해 보증을 금지하
고 있는 것과 상반된 조치다.
진도에서 근무중인 한 교사는 "교
직원 중에서 누가 보증을 해주겠으
며, 또 아무리 동료라지만 보증을 서
달라는 부탁을 어떻게 하겠느냐"며
한숨을 내쉬었다.
또 전남의 한 군에 거주하는 청각
장애 2급을 앓고 있는 장애아동(7)은
지난해 유치원 무상교육을 받았으나,
올해엔 받지 못한다는 통보를 받았
다. 도교육청이 1년 무상교육 이후 추
가 지원에 난색을 표명했기 때문이
다. 도 교육청은 법적기준이 모호하
고, 국가인권위에서 지난 2007년 비
슷한 사안에 대해 지원을 하지 않아
도 된다는 결정을 내렸기 때문이라는

이유를 들었다.
그러나 국가인권위 관계자는 이날
"2007년 당시 여러 상황을 고려해 권
고한 것일 뿐 지원여부는 해당 기관
에서 알아서 판단할 일"이라며 "3년
전의 권고문을 가지고, 2010년 현재
의 장애아동 지원을 금지하는 것은
무리가 있을 수도 있다"고 답변했다.
전남도교육청의 한 공무원은 "기
관장(교육감)이 있었을 때는 반발이
예상되는 교원보증제나 장애아 지원
금지 등은 생각할 수도 없는 일이었
다"면서 "지난해 10월부터 교육감 공
석 이후 교육청 내부에선 민원인을
배려해 책임지는 일을 하지 않으려는
풍조가 만연해 있다"고 지적했다.
/박진표기자 lucky@kwangju.co.kr



'잇몸의 날' 무료 구강검진
'잇몸의 날'인 24일 광주시 북구 용봉동 전남대 치과병원에서 의료진들이 광
주시민들을 대상으로 치주질환에 대한 강좌와 함께 무료 구강검진을 실시하
고 있다.
/김진수 기자 jeans@kwangju.co.kr

또 1표차

'돈 살포' 다시 치른 임자농협장 보선
접전 예측 근거 없어 주민들도 '가웃'

단 한 표차로 당락이 갈린 후
금품살포 사실이 드러나 주민 1
천여명이 경찰 조사를 받는 등 흥
역을 치르고 다시 실시된 신안 임
자농협 조합장 보궐선거에서 또
다시 한 표차로 승부가 갈려 그
배경에 눈길이 쏠리고 있다.
24일 신안군 선거관리위원회
에 따르면 총유권자 1천90명 가
운데 848명이 투표에 참여한 지
난 23일 임자농협 조합장 보궐선
거에서 정태실(60·임자농협 전
이사) 후보가 421표를 득표해
420표를 얻은 김성수(57·임자농
협 전 전무) 후보를 이슬이슬하
게 눌렀다.

월 선거와는 달리 이번 선거에서
는 선거 열기 자체가 실종돼 접전
을 예측할 만한 뚜렷한 근거가 없
었기 때문이다.
주민 간에는 농협의 전무를 지
낸 김 후보를 추대형식으로 말자
는 얘기도 돌았던 것으로 알려졌
으나, 정 당선자가 막판 목숨을
발휘해 판세를 뒤집었다는 게 대
체적인 분석이다.
'돈선거 오명'을 뒤집어 쓴 주
민들이 선거에 염증을 느껴 무려
242명이나 투표에 참여하지 않은
것도 박빙의 승부를 불러온 한 요
인. 투표율 97.3%를 기록했던 이
전 선거와 달리 이번에는 77.8%
로 폭 떨어져 한 표차 당락의 구
도를 만드는 요인이 됐다.
/서부취재본부=조원남기자 wncho@

'횡령 교사' 방과후 수업비 착복

광주지방경찰청 수사2계는 방과
후 수업비를 횡령하고 감사들로부터
채용 대가 명목으로 돈을 받은 광주
주 중학교 여교사 김모(58)씨를 뇌물
수수 및 업무상 횡령혐의로 불구속
입건했다.
경찰에 따르면 김씨는 지난 2008년
부터 지난해 1월까지 광주 모 고교에
서 근무하며 감사 1명으로부터 채용
대가 명목으로 150만원을 받고, 감사
3명으로부터 방과 후 수업비 280만원
을 되돌려 받는 등 430만원을 받은 혐

의를 받고 있다.
김씨는 또 광주시 교육청에서 방과
후 특화수업비로 880만원을 지원받
은 뒤 방과 후 교실을 한 것처럼 속여
지원금을 모두 챙겼으며, 서울 H대학
경연대회 참가비로 학생들로부터 받
은 돈 중 1천100여만원을 횡령한 혐
의도 받고 있다. 이에 대해 김씨는 경
찰에서 "강사들로부터 돈을 받은 사
실도, 횡령한 사실도 없다"고 혐의를
전면 부인하고 있다.
/이종형기자 golee@kwangju.co.kr

'뒷돈 교수' 채용비리 2명 입건

광주지검 특수부(부장검사 김재
구)는 24일 교수 채용과정에서 '뒷돈'
을 주고받은 혐의(배임수재 등)로 조
선대학교 S(61)·J(55)교수 등 2명을
불구속 입건했다.
경찰에 따르면 S교수는 지난 2007
년 4월 자신의 연구실에서 교원 공채
심사에서 편의를 봐준 대가로 J교수
로부터 1천만원을 받은 혐의다.
검찰은 S교수가 지난 2006년 12월

J교수로부터 "교원공채 심사 때 편의
를 봐 달라"는 청탁을 받고 같은 달
18일 열린 심사에서 만점에 가까운
점수를 준 것으로 보고 있다.
J교수는 2007년 3월 전임 교수로
임용됐다.
S교수 등은 "학교발전기금 등으로
받은 돈일뿐 청탁성 '뒷돈'은 아니다"
라며 혐의를 부인하고 있는 것으로
알려졌다.
/최경호기자 choice@



금품 받은 前 교도관 징역형

광주지법 목포지원 형사2단독 고
상영 판사는 24일 재소자들에게 편의
를 제공해주는 대가로 돈을 받은 혐
의(뇌물수수)로 기소된 전 목포교도소
교도관 김모(56)씨에 대해 징역 6
월에 추징금 610만원을 선고했다.
재판부는 또 김씨에게 돈을 준 혐
의(뇌물공여)로 기소된 재소자 김모
(45)씨에 대해서는 징역 8월에 추징
금 200만원을 선고했다.
/서부취재본부=이상선기자 sslee@

NRG 출신 이성진씨 사기혐의 체포

○그를 NRG
출신 방송인 이성
진씨가 2건의 사
기혐의로 경찰에 체포.

○청주 흥덕경찰은 24일 이씨에
대해 강원도 정선에서 발생한 사기
사건에 대한 조사를 벌이는 과정에서
서울 영등포경찰이 또 다른 사기 혐
의로 수배한 사실을 확인하고 이씨를
긴급체포.
○이씨는 지난달 19일 "이씨가 2
천만원을 빌려 갔지 않았다"는 이유
로 대리운전기사 A(35)씨로부터 고
소당했는데, 이미 서울에서도 B씨에
게 1억여원을 빌린 뒤 갚지 않은 혐의
로 수배가 내려졌던 것.
○이씨는 A씨가 고소한 사건에
대해 "자인이 빌려달라고 해서 대신
빌려줬을 뿐"이라고 주장.
/연합뉴스

나랏돈 빼돌려 맘껏 주유

수천만원 횡령 나주시 공무원 구속 ... 눈감아 준 4명도 입건

나주시경찰은 24일 산림가꾸기 사업에 써야 할 국
가에산으로 구입한 기름을 자신 및 가족 차령운행
에 사용한 나주시청 공무원 임모(55·7급)씨를 사
기 혐의로 구속했다. 또 이를 눈감아준 최모(59·5
급)씨 등 4명을 같은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.
경찰에 따르면 임씨는 지난 2007년 7월 나주시
모 주유소에서 '산림 가꾸기 작업' 현장에서 쓸 것

처럼 전표를 작성하고 휘발유 20L 를 자신의 승용
차에 넣는 등 575차례에 걸쳐 2천600만원 상당의
기름을 빼돌린 혐의를 받고 있다.
임씨는 또 지난해 11월 예산을 전용해 유류구입
비가 아닌 시설부대비에서 유류비로 1천100만원
상당을 사용한 혐의도 받고 있다.
/중부취재본부=최승렬기자 srchoi@

성범죄 출소자 또 강간미수

광주북부경찰은 24일 호프집 여주인을 성폭행하
려한 선모(42)씨에 대해 강간치상 혐의로 구속영
장을 신청했다. 경찰에 따르면 선씨는 지난 10일 밤
9시30분께 광주시 북구 운암동 김모(여·39)씨의
호프집에서 혼자 있던 김씨를 강간하려다 미수에
그친 혐의를 받고 있다.
선씨는 2002년 6월 21일 경기도 수원에서 다방
여종업원을 강간하려다 미수에 그친 죄로 7년을 복
역한 뒤 지난해 6월 만기 출소한 것으로 드러났다.
/이종형 기자 golee@kwangju.co.kr

광주북부경찰은 24일 호프집 여주인을 성폭행하
려한 선모(42)씨에 대해 강간치상 혐의로 구속영
장을 신청했다. 경찰에 따르면 선씨는 지난 10일 밤
9시30분께 광주시 북구 운암동 김모(여·39)씨의
호프집에서 혼자 있던 김씨를 강간하려다 미수에
그친 혐의를 받고 있다.
선씨는 2002년 6월 21일 경기도 수원에서 다방
여종업원을 강간하려다 미수에 그친 죄로 7년을 복
역한 뒤 지난해 6월 만기 출소한 것으로 드러났다.
/이종형 기자 golee@kwangju.co.kr

7.9 공무원은 경찰직
합격 전문학원
개강)매월1회
경찰직
서울경찰전문학원 | 251-7959

의사/약사가 되는길
PEET/MEET/DEET
MDP Pass
서울고시학원